제조업 체감경기 '희비 엇갈려'… 광주 회복세·전남 최악

6월 제조업 CBSI '81.6'… 10개월째 기준치 이하

광주 5개월째 기준치 상회… 전남 6월 최저치 기록

광주·전남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6월 들어서도 냉랭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제조업 체감경기는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소재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6월 체감경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1.6으로 전월 대비 12.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전국 평균 체감 경기지수(94.4)와 비교하면 12.8p 낮았다.

다음 달 전망도 어둡다. 7월 전망 CBSI는 79.5로 전월보다 10.3p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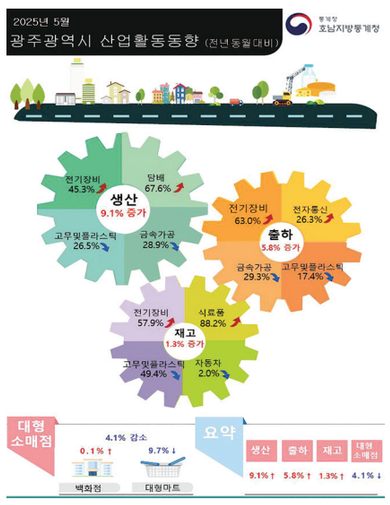
광주·전남 제조업 CBSI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듯 지난해 8월(101.3) 이후 기준치(100)를 밑도는 상황이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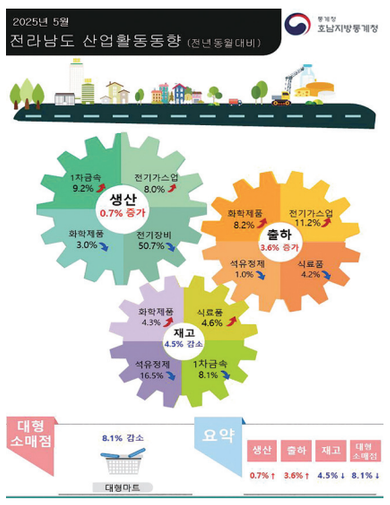
그나마 광주는 6월에도 100.4를 기록해 2월부터 5개월째 기준치를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전남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에 6월 지수는 전월보다 14.6p 낮은 '73.6'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6월 광주·전남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6.6으로 전월보다 6.7p 하락했다. 전국(87.4) 평균 지수와 비교하면 0.8p 낮았다.

다음 달 전망도 밝지 않았다. 7월 비제조업 CBSI는 88.1로 전월보다 5.0p 하락했다.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 경쟁 심화 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비제조업체들은 내수 부진, 자금 부족,





인력난·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CBSI는 기업경기 실사 지수(BSI)중 업황·생산·자금 사정 등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 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100)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이뤄졌으며 제조업 264개사, 비제조업 276개사 등 540개사가 응답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은행, 세계양궁대회 연계 '텐텐 양궁 적금' 출시

안산 선수 등 참여 적금 가입행사 진행

광주은행은 30일 본점 영업부에서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출시한'TenTen(텐텐) 양궁 적금' 가입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과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2025광주방문의 해를 알리고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산 선수는 "양궁의 도시 광주에서 특별한 금융상품이 출시돼 매우 뜻깊다"며 "많은 분들이 광주를 방문해 대회를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스포츠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며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적금은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상품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광주은행 TenTen양궁단 선수의 경기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60%포인트(p)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 '2025광주방문의 해'를 기념해 광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위치를 인증한 실적에 따라 연 최고 0.70%p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2025년은 광주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파리 코리아엑스포'서 487만달러 수출상담

광주공동관 운영… 지역기업 6개사 기술력 선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역기업 6개사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 인 파리(Korea Expo in Paris 2025)'에 참가, 광주 공동관을 운영하며 총 48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제로웰(공기청정기 등 에어가전) ▲센도리(공기순환기) ▲유니컴퍼니(열화상 카메라) ▲티아이파인터내셔날(두피케어기) ▲스위치온(조명기구) ▲2월의산(나전칠기 자개보석함)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업들이 참가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광주 K-제품의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선보였다.

특히 부대행사인 'K-Class(참가기업 제품 시연회)'에는 '티아이피인터내셔날'과 '2월의산'이 직접 제품 시연에 참여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시장 조사 기회로 활용했다.

행사 기간 총 3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참가기업들은 향후 정식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파리 코리아 엑스포'는 한류 콘텐츠와 대한민국 제품을 결합한 복합문화형 수출전시회로, 이번 행사에는 203개 기업이 360여개 부스를 운영

하며 3만2341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엑스포에서 지역 기업들이 유럽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기술력을 갖춘 광주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산업단지 환경조성 3차 공모 국비 84억 확보

여수·나주·함평 선정… 근로·생활·문화 등 개선해 청년 유입 기대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3차 공모사업'에 여수·나주·함평 3개 산업단지가 선정돼 국비 8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산단 거리 조성, 노후 공장 리뉴얼 등 산업단지의 근로·생활·문화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수 오천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국비 4억 원)은 상근 인력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복지시설 개선, 공장 외관 정비, 녹지 환경 조성 등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진행된다.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국비 20억 원)은 산단에 특화 거리 조성,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교통 환경 개선으로 추진된다. 산단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강화가 기대된다.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국비 60억 원)은 근로자를 위한 휴식, 문화, 체육 기능이 복합된 공간 조성으로 청년층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2025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9개소 사업이 선정돼 국비 21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노후로 청년층 유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형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작년 광주시민 10만3000명 에너지 절감 실천

광주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포인트제' 총 14억원 지급

온실가스 7만8000t 감축… 소나무 862만그루 흡수량 해당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한 해 동안 에너지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 10만3000여명에게 14억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제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 또는 중·소상공인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감하거나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의 특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 특전(인센티브)은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 분야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전체 65만여세대 중 56%에 달하는 37만여세대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 가입해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5만3088세대에 6억8300만원, 하반기에는 4만7762세대에 5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분야에서는 1879명에 1억3500만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는 등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만3000여명에게 인센티브 14억 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시민의 참여로 총 7만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862만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연중 광주시 누리집이나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매년 2~4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는 지금,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절감 실천에 동참해 환경 보호와 인센티브 혜택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